

노년층의 주거계획을 위한 기초 연구 - 동거의식과 거주실태조사를 중심으로 -

A Fundamental Study of the Elderly Housing - Focused on a Consciousness of Sharing Housing &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of Residence -

윤 충 열* 이 동 숙**
Yoon, Choong Yeul Lee, Dong Suk

Abstract

The increasing population of the elderly is a serious problem in our communities, and a large supply of an apartment house are to accelerate rise of elderly population in apartment house massed areas. The living Pattern of the aged is different from other generations. Accordingly, the living arrangements are induces many problems in the housing life of elderly, sometimes it lower in quality of lif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earch for the actual family life and needs of the elderly in apartment house. And it was to seize discrepancy between three-generation family and elderly living alone. Also by a user of housing for the elderly, it was to search for an acknowledged and an preference degree about that.

I. 서 론

고령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의 해결을 위한 가정의 역할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고, 농촌 지역내 인구의 고령화와 더불어, 대도시에서의 노인인구의 증가율도 심화되어가고 있어 이들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대도시에서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주거지로서의 공동주택의 대량공급은 공동주택 내에 노인층의 증가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단독주택과는 달리 획일적인 공간을 제공하는 공동주택이 노인의 정신적, 육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되었다고 할 수 없고, 노인정이나 경로당 등이 노인들을 위해 계획되었다고는 하나 노인들의

실생활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다만 일부 노인들의 여가활동 공간으로 이용되는 실정이다.

또한 1985년(인구보건연구원)의 조사에서는 노인가구 중 60세 이상의 노인가구가 20.5% 였으나, 인구주택총조사(1995)에 의하면 1995년 현재 36.2%에 이르러 동안 16%의 증가율을 보이며, 이는 동일기간의 노인인구비의 증가율 2.5% 보다 훨씬 앞지르는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듯 노인만의 독립가구수의 증가도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반면에 중장년층에 노후에 대한 선호도를 보면 조사대상의 45.8%가 독립가구를, 39.1%는 자녀와의 동거를 희망하고 있어 이 두 가지 동거유형에 대한 비교 연구가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노인층이 실감하고 있는 주거에 대한 의식의 정확한 분석이 장차 중

*정회원, 원광대학교 교수, 공학박사
**정회원, 원광대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이 논문은 97년도 원광대학교의 교비지원에 의해 연구됨"

장년층 또는 청년층에 대응될 수 있는 주거환경의 형성에 절대적인 필수조건이라 판단되어,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노인들의 거주형태에 따른 住空間 이용실태와 동거의식을 조사하여 이러한 요인들이 동거유형과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가를 알아보고, 또한 노인전용주거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높아가고 있는데 이에 실질적인 수요자로서 노인들의 인지도와 선호도의 정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II. 조사개요

1. 조사범위 및 방법

조사대상 지역은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대규모 고층아파트 단지로 하고 조사 대상은 55세 이상의 남녀 노인으로 하였다. 노인이라 칭해지는 연령층은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으로 하지만, 예비조사 결과 여성비율이 높고 여성의 경우 55세 이상이 되면 가정이나 사회에서의 활동이 감소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55세 이상으로 하였다.

조사도구로서는 설문지를 택하였는데 총 800여부 배포하여 232부를 회수하여 약 29%의 비교적 낮은 회수율을 보였다. 이는 세대별 방문은 물론 조사대상인 노인들의 직접 면담에 대한 거부감이 심하고, 일부 단지의 경우 예비조사에 이용된 자료의 정확성이 떨어져 실제 거주자와 일치되지 않아 잘못 배포된 경우가 많아, 단지별로 차이를 보여 총 5개 단지 중 W단지의 경우는 52%, H단지의 경우는 10% 미만의 회수율을 보였다.



그림 1. 동거유형.

조사방법으로는 예비조사에 의해 55세 이상의 노인이 거주하는 세대를 선정하고 직접 면담에 의한 조사와 병행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각 세대별로 설문지를 배포한 후 각 세대별 우편함을 통한 간접수거방식을 주로 행하였으나 회수율이 매우 저조하여, 세대 방문과 단지내 노인정이나 경로당의 방문을 통한 직접 면담방식을 병행하였다.

조사시기는 1997년 11월부터 1998년 1월까지이다.

2. 조사대상의 속성

(1) 세대의 유형분류

조사대상을 현재 동거하는 가족형태에 따라 2가지로 분류하였는데, 노인들이 직계존속이나 다른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를 “동거세대”로, 노인부부만 혹은 독신으로 거주하는 경우를 “독립세대”로 칭하였다.

본 조사의 응답자 중 동거세대는 63.4%이며, 독립세대는 36.6%로 나타났는데 이는 조사대상의 연령이 55세 이상인 관계로 자녀가 미혼이거나 재학중으로 동거가 지속되어야 하므로 동거세대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2) 연령계층

표 1. 연령 계층별 분포도

구분	55-59세	60-64세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이상	計
동거세대	27(18.4)	17(11.6)	25(17.0)	22(15.0)	30(20.4)	26(17.7)	147(100)
독립세대	9(10.6)	18(21.2)	28(32.9)	21(24.7)	5(5.9)	4(4.7)	85(100)
計	36(15.5)	35(15.1)	53(22.8)	43(18.5)	35(15.1)	30(12.9)	232(100)

전체 응답노인의 연령층은 55세에서 80세 이상까지 5세단위 연령계층별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거나, 65-69세가 22.8%로 가장 많고, 80세 이상이 12.9%로 가장 적다. 동거세대의 경우 각 연령층이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독립세대인 경우에는 60대와 70대 초반에 집중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독립세대의 이러한 연령분포는 자녀의 독립시기와 연관성을 갖는데, 60세를 전후로 자녀의 결혼, 직장, 학교 등으로 독립을 시작하여 70대 전후까지는 건강, 경제 등 여러 조건상 독자적인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3) 배우자의 결손여부

배우자의 결손율을 보면 독립세대의 경우 2.7%인 반면, 동거세대의 경우 52.4%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부부 중 일방의 결손이 생기면 독립세대를 구성하기보다는 자녀들과 동거하는 경향이 강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4) 학력 및 건강상태

응답자의 학력은 고졸이상인 경우가 49.1%로서 비교적 고학력자의 비율이 높고, 無學者인 경우도 22.0%에 달한다. 세대 유형별로 보면 독립세대의 경우 고졸이상이 74.1%로서 동거세대의 34.7%에 비해 학력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는 '보통이다'가 40.1%, '좋다'가 37.1%로서, 77.2%가 자신의 건강에 대해 긍정적이며, 특히 독립세대인 경우에는 '나쁘다'고 답한 노인은 10.6%에 불과하다.

(5) 경제적인 자립도

경제적인 자립도에 있어서는 경제적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있는 경우가 52.2%인 반면, 자녀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경우는 33.6%이다. 동거세대의 경우는 자녀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경우가 50.3%이고 본인이 해결하는 경우는 34.0%에 불과한데 반해, 독립세대의 경우는 본인이 전적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83.5%로 동거세대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III. 동거에 대한 인식

1. 동거현황 및 동거이유

동거세대의 경우, 가족수는 5인 이상이 54.3%, 기혼자녀의 가족과 동거함으로써 3대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63.2%로 나타나 동거세대의 경우는 3대 이상의 대가족의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다. 1980년대 까지만 해도 노부모 동거가구 중 3대 이상이 차지하던 비율이 약 96% 정도이었는데 점차로 2대 동거가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⁴⁾.

이들의 동거이유에 관해서는 '처음부터 함께 살았다'가 60.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자녀가 원하기 때문'이 18.7%로 나타났다.

반면에 노인 자신이 원하여 동거를 하는 경우는 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상당수의 노인들이 자신의 의사가 아닌 다른 이유로 동거하고 있다는 의식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1993년 전국적인 규모의 노인생활실태 및 의식구조에 대한 설문조사⁵⁾에서는 1,000여 사례 중 50% 정도가 자녀와 동거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이중 아들과의 동거에 대한 희망은 절대적(99.9%)으로 나타나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녀와의 동거를 선호하면서도 실제 동거하고 있는 자신의 생활에 대해서는 스스로의 의지가 아니라는 의식을 하고 있어 거주실태와 요구의

표 2. 동거나 별거 이유 f(%)

동거·별거 이유	동거세대	독립세대
건강	7(4.7)	
경제적 문제	1(0.7)	
자녀의 의사	28(18.7)	1(1.2)
노인의 의사	8(5.3)	13(15.3)
자녀의 학교/직장		21(24.7)
자녀의 출가		16(18.8)
처음부터	90(60.0)	
배우자의 결손	3(2.0)	
손자양육	3(2.0)	
기타	1(0.7)	3(3.5)
무응답	9(6.0)	31(36.5)
計	150(100)	85(100)

*중복 응답자 포함.

측면에 있어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60.0%가 처음부터 함께 살았기 때문에 별다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도 그 원인이 된다. 그 외의 이유로는 건강상의 문제, 배우자와의 사별, 손자양육 순으로 나타났다.

독립세대가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이유로는 자녀의 학교나 직장 때문이라는 경우가 24.7%로 가장 많고, 자녀의 출가 때문이 18.8%, 노인 자신이 원하기 때문이 15.3%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독립세대의 경우, 자녀의 성장에 따른 별거가 주를 이루어 자신의 의사보다는 자녀의 상황에 따른 별거가 원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별거의 이유를 묻는 질문에 무응답자가 36.5%에 이르는 점이 주목되는데, 동거세대의 동거의 이유에 대한 무응답율이 6.0%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별거의 경우 잘못된 사연들이 내재된 때문으로 보여진다.

2. 동거에 대한 선호도

(1) 동거유형별 동거선호도

응답자 중 자녀와의 동거를 지속하거나 희망하는 경우가 47.0%로서, 이를 동거유형별로 보면 동거세대의 경우에는 65.3%가, 독립세대의 경우에는 15.3%만이 동거를 희망하고 있어 자신의 주거형태를 그대로 지속시키려는 경향이 강하게 보이고 있다.

동거세대의 경우 노인들의 희망에 의한 경우는 5.3%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자녀와의 지속적인 동거를 희망하는 경우는 65.3%로 나타나 동거의 지속에 대한 희망이 노인들의 자발적인 요구 이외의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세대의 경우 동거를 희망하는 이유로서는 타인에 대한 의식 때문이라는 답이 87.0%로 압도적이며 그 외에 외로움, 건강 등의 이유로 나타났다. 자신의 의사와는 별개로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것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 시선으로 자신을 보아 줄 것인가가 노인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 동거 선호도

f(%)

구분	합	성별		연령별				건강상태별			학력별			경제적 능력별			배우자유무		
		남	여	60세 미만	70세 미만	80세 미만	80세 이상	나쁨	보통	좋다	고졸 이상	중졸 이하	無學	본인 부담	본인+ 자녀	자녀	동거	사별/ 별거	
동거세대	동거 희망	96	25	71	9	19	43	25	33	36	25	20	34	41	18	16	61	29	65
	별거 희망	39	17	21	12	18	8	1	6	18	14	21	11	7	22	4	13	29	10
	小計	135	42	92	21	37	51	26	39	54	39	41	45	48	40	20	74	58	75
독립세대	동거 희망	13	8	5	2	6	4	1	1	8	4	10	3		9	2	1	13	
	별거 희망	50	37	13	2	26	20	2	8	19	23	35	14	1	43	5	2	48	2
	小計	63	45	18	4	32	24	3	9	27	27	45	17	1	52	7	3	51	2
전세대	동거 희망	109	33	108	11	25	47	26	34	44	29	30	37	41	27	18	62	42	65
	별거 희망	89	22	34	14	44	28	3	14	37	37	56	25	8	65	9	15	77	12
	計	198	55	142	25	69	75	29	48	81	66	86	62	49	92	27	77	119	77

*소계합이 100%에 미치지 않는 경우는 무응답자로 인한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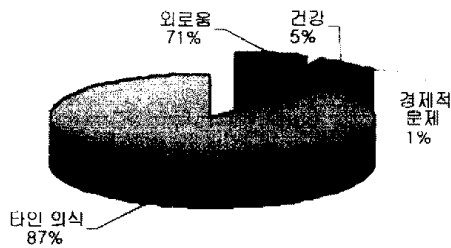


그림 2. 독립세대의 동거희망이유.

(2) 연령계층별 · 性別 동거선호도

대체로 고령자가 동거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경향을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60대까지는 동거보다는 별거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다가, 70세가 넘으면서 별거보다는 동거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70세 전후로 자녀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거 선호도를 性別로 구분해 보면 남성 응답자의 60.1%가, 여성 응답자의 76.1%가 자녀와의 동거를 희망하고 있어 긍정적이나, 동거유형과는 관계없이 남성보다는 여성의 선호도가 높게 보여져, 직접 면담에서와는 반대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직접 면담시 여성 응답자를 통한 배우자의 경향에서는 남성들이 자녀와의 동거를 원하고 있다는 경우가 많았으나, 설문 결과는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가족간에서는 동거에 긍정적이나 실제 생활의 측면에서는 꺼리는 요인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건강상태에 따른 동거선호도

현재 자신의 건강에 대해 '나쁘다'고 답한 경우의 70.8%가, '보통이다'고 답한 경우의 54.3%의 노인이 동거를 희망하나, '건강하다'고 답한 경우에는 43.9%가 동거를 희망하고 있어 건강상태가 양호하면 자녀와의 동거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져 건강상태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동거자에 대한 선호도에 의하면 배우자의 유무와 상관없이 건강시에는 약 22%가 동거를 희망하나⁹⁾, 건강이 악화되면 약 60% 정도로 증가하는 성향을 보인 것과 같이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동거 유형별로 보면 이와는 다른 결과들을 보이고 있는데, 동거세대에서는 나쁘다는 응답자의 84.6%가, 좋다는 응답자의 64.1%가 동거에 긍정적이어서 건강이 나쁠수록 동거를 희망하고, 독립세대의 경우 '건강하다'는 응답자의 14.8%, '보통이다'는 응답자의 29.6%, '나쁘다'는 응답자도 11.1%만이 동거를 희망하고 있고 이들에게는 건강상태가 그다지 동거에 대한 선호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학력별 동거선호도

無學의 경우에는 83.7%가, 중졸 이하의 저학력자는 59.7%가 자녀와의 동거를 희망하고 있는 반면, 고졸 이상의 고학력자는 34.9%가 동거를 희망하고 있어, 학력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학력이 낮으면 자녀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학력이 높으면 독자적인 생활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거세대에서는 고졸이상인 경우만 별거를 선호하는 비율이 높고, 독립세대에서는 모든 학력층에서 별거에 대한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5) 경제적 능력에 따른 동거 선호도

전체 응답자 중 완전한 경제력을 가진 경우의 29.3%가, 자녀에게 조금이라도 경제적인 도움을 받고 있는 경우의 66.7%가, 경제적인 문제를 자녀에게 전적으로 경우의 80.5%가 자녀와의 동거를 희망하고 있어 경제적인 자립도가 낮으면 자녀와 동거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동거세대의 경우, 본인의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 동거보다는 별거를 원하는 노인이 10%가 많으나, 반면에 본인의 경제적 능력이 있어도 자녀와 함께 살고 싶어하는 경우도 40%를 넘는데 이는 동거세대의 32.3%가 출가전 자녀와 동거하고 있어 이러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자녀에게 조금이라도 경제적인 도움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80.0%가, 경제적인 문제를 전적으로 자녀에게 의존하는 경우에는 82.4%가 자녀와의 동거를 지속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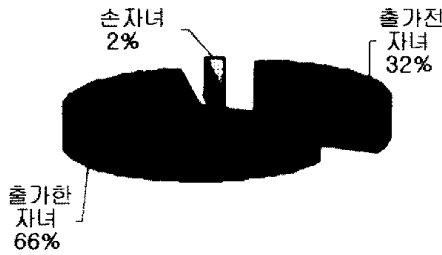


그림 3. 동거자녀.

러나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하더라도 자녀와 동거하지 않겠다고 답한 노인도 17.6%로 나타나 이들의 경우는 자녀와의 동거가 상당한 장애요소라고 판단된다. 노후의 경제적인 문제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는 문제의 심각성을 표현하고 있다.

독립세대의 경우, 본인이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17.3%가, 자녀에게 의존하고 있다하더라도 30% 내외만이 자녀와의 동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배우자 결혼여부에 따른 동거 선호도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와의 동거를 희망하는 노인이 35.3%이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동거를 희망하는 노인이 84.4%로서 배우자의 결혼 여부가 자녀와의 동거에 대한 선호도에 결정적인 요인 중 하나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부가 서로에게 의존하고 그로 인해 자녀에 대한 의존도가 적기 때문에 동거에 부정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동거세대에서 보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동거나 별거가 각 50%의 동일한 선호도를 보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86.7%가 동거를 지속하기를 희망하며, 독립세대의 경우 부부동거 비율은 높으나 사별 등으로 혼자가 될 수 있음에도 자녀와의 동거를 꺼리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오찬욱, 이연숙의 조사결과(1993)에 의하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약 30%가,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약 55%가 자녀와의 동거를 선호하고 있어 배우자의 유무가 자녀에 대한 의존도를 증가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V. 거주실태

1. 거주 年數 및 이주 결정자

현재의 아파트에서 5년 이상 거주한 경우는 44.0%이며 1년 미만인 경우는 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를 시작한지 4-7년이 경과한 아파트를 조사대상으로 하였는데, 3년 이상 거주한 경우가 전체 응답자 중 77.1%로서 이들의 경우에는 현 아파트에서의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적이고 적응이 되어 있어 익숙해진 상태라 볼 수 있다.

현 주택으로의 이주를 전적으로 본인이 결정하거나, 자녀가 결정하거나, 가족들과 상의한 경우가 각각 34.1%, 28.5%, 30.6%로서 비슷한데, 노인이 가정의 주요 사안에 관해서 74.7%가 그 결정에 있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거세대의 경우, 자녀가 이주 여부를 결정하는 비율이 42.1%인 반면, 노인 자신이 결정한 경우가 26.5%로서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의 경우, 경제력도 미비하고 배우자의 결혼이 많은데다, 여성 응답자가 67.0%로 移住와 같은 가정의 중대사에서는 많은 결정권을 가질 수 없는 것으로 예측된다.

독립세대의 경우, 동거세대와는 반대로 본인이 직접 결정한 경우가 48.2%인 반면, 자녀가 결정한 경우는 4.7%로 아주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자녀의 간섭없이 독자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2. 주요 실의 이용실태 및 만족도

(1) 침실

구 분	본인	자녀	가족	무응답	計
동거세대	38(25.9)	62(42.1)	39(26.5)	8(5.4)	147(63.4)
독립세대	41(48.2)	4(4.7)	32(37.7)	8(9.4)	85(36.6)
計	79(34.1)	66(28.5)	71(30.6)	16(6.9)	232(100)

노인에게 있어서 침실은 단순히 수면과 휴식을 위한 공간이라기 보다는 거의 모든 일상적인 생활을 담아내고 있는 공간이라 할 수 있으며, 주택 내에서의 체류시간도 전업주부와 마찬가지로 가족 구성원 중 가장 길기 때문에 침실의 비중이 높다.

응답자 전체의 침실 이용실태를 보면 배우자와 함께 이용하는 경우가 56.5%, 혼자서 이용하는 경우가 31.0%, 자녀나 손자와 함께 이용하는 경우가 11.1%로서 배우자 혹은 혼자서 이용하는 노인이 87.5%로 나타났다.

동거세대의 경우, 부부가 함께 이용하거나 혼자서 이용하는 경우가 83.0%인 반면, 자녀나 손자와 함께 이용하는 경우도 14.3%로 나타났다. 독립세대인 경우, 배우자와 따로이 독립된 침실을 사용하는 경우가 16.0%로 나타나고 있어 자신만의 공간을 갖고자 하는 경향도 보여지고 있다.

이용에 있어 "만족"이 44.8%, "보통"이 39.2%로 85.0%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독립세대의 경우에는 "불만"이라고 답한 노인이 단 한 명도 없었다.

만족여부와는 관계없이 침실이용상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는 "계절에 따라 실온이 적당하지 않다"가 25.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공간의 협소", "소음"이 20.3%, "함께 사용하기 때문"이 17.2%, "日光부족"이 15.6%로 나타났다. 동거세대에서는 25.5%가 소음이 가장 불만스러운 점이고, 독립세대에서는 "계절에 따라 실온이 적당하지 않다", "협소"가 35.3%로 가장 불만스러운 점이라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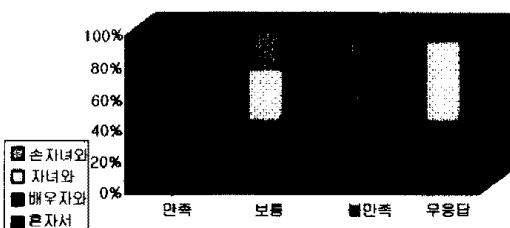


그림 4. 침실의 공동 이용자.

표 5. 침실사용상 문제점 f(%)

구 분	동거세대	독립세대	계
함께 사용하기 때문	7(14.9)	4(23.5)	11(17.2)
협소하다	7(14.9)	6(35.3)	13(20.3)
실온의 부적합	10(21.3)	6(35.3)	16(25.0)
소음	12(25.5)	1(5.9)	13(20.3)
일조·채광부족	10(21.3)		10(15.6)
기타	1(2.1)		1(1.6)
計	47(73.4)	17(26.6)	64(100)

침실의 위치는 가정내에서 노인의 역할을 단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하므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독립세대의 경우는 자신들이 원하는 침실을 이용할 수 있어 이들에게는 별다른 의미가 없겠으나, 동거세대의 경우에는 가정 내에서의 노인의 위상을 나타내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동거세대의 경우, 51.6%가 안방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들 중 73.0%는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다. 25.4%가 부엌측 방을, 20.5%가 현관측 방을 이용하고 있어, 안방 이외의 실을 사용하는 경우가 45.9%로 나타났는데, 이들 중 각 12.9%, 42.0%는 배우자가 있음에도 작은 방을 이용하고 있다. 거실을 침실로 이용하고 있는 노인은 2.5% 정도로 침실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전면에 배치된 안방이외의 침실은 일조 및 채광에 불리하고, 계단실이나 복도의 소음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등 노인이 이용하기에 부적절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이 중 현관에 인접한 침실은 외부로의 출입에는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고, 식사실에 인접한 침실은 실온이 다소 높다는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기도 하다.

독립세대의 경우, 81.9%가 안방을 이용하는데 이 중 1.7%는 배우자가 없이 단독이용을 하고, 12.5%는 안방 이외의 방을 이용하며, 거실에서 잠을 자는 경우도 5.6%로 이들의 경우 거실이 침실보다 개방감이 있고 TV시청이 편리하다는 등의 이유를 가지고 있다. 배우자 결혼율이 3% 미만인데 혼자서 침실을 사용하는 경우가 14.1%

표 6. 이용침실의 위치

		f(%)				
구 분		안 방	부엌측 방	현관측방	거 실	計
동거세대	배우자동거	46(73.0)	4(12.9)	6(24.0)		56(45.9)
	배우자사별	17(27.0)	27(87.1)	19(76.0)	3(100)	66(54.1)
	小計	63(51.6)	31(25.4)	25(20.5)	3(2.5)	122(100)
독립세대	배우자동거	58(98.3)	5(71.4)	2(100)	4(100)	69(95.8)
	배우자사별	1(1.7)	2(28.6)			3(4.2)
	小計	59(81.9)	7(9.7)	2(2.8)	4(5.6)	72(100)
전세대	배우자동거	104(85.2)	9(23.7)	8(30.0)	4(57.1)	125(64.4)
	배우자사별	18(14.8)	29(76.3)	19(70.0)	3(42.9)	69(35.6)
	計	122(62.9)	38(19.6)	27(13.9)	7(3.6)	194(100)

로, 이들의 경우 각기 다른 취침공간을 갖는 것이 훨씬 편하다는 이유이다.

(2) 식사 공간

전체적으로 부엌이나 식사실에서 식사를 행하는 경우가 82.8%로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침실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는 단 21.2%로 나타나 食寢分離는 확실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다. 거실에서의 식사는 13.4%로 나타났는데, 밥상을 사용하여야 하고 주부의 작업 동선이 다소 길어지는 단점이 있으나 T.V시청, 가족간의 유대감 증가 등의 이유로 거실을 선호하기도 한다.

동거세대와 독립세대 모두 식사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87.1%, 75.3%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거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동거세대에서는 8.4%에 불과한 반면 독립세대에서는 21.2%로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동거세대의 경우는 다른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여야 하지만, 독립세대의 경우는 자신들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공간에서의 식사가 가능하므로 훨씬 자유로운 형태로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3) 화장실

욕실의 이용에 대한 불만 정도는, 동거세대의 경우 6.1%이고 독립세대의 경우 2.4% 정도가 불만족하고 있어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실의 사용시 불만이유에 대해서는 “바닥이 미끄럽다”, “협소하다”가 각 22.6%이고, “환기

표 7. 식사장소

		f(%)		
구 분	동거세대	독립세대	計	
침 실	4(2.7)	1(1.2)	5(2.2)	
거 실	13(8.4)	18(21.2)	31(13.4)	
부엌/식사실	128(87.1)	64(75.3)	192(82.8)	
기타	2(1.3)	2(2.4)	4(1.7)	
計	147(63.4)	85(36.6)	232(100)	

부족”이 18.9%로서 냄새가 난다고 하고, 그 다음으로는 “식구가 많아서”가 17.0%로 나타나고 있다. 수세식 변기에 대한 거부감은 거의 보이지 않아 수세식에 익숙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부엌

응답자 본인이 부엌에서 실제로 취사를 하는 노인은 47.8%로서 이들 중 41.4%가 ‘아주 만족’, 46.8%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여 그다지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불과 1.8%만이 ‘불만족’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8. 화장실 사용시 불만요인

		f(%)		
구 분	동거세대	독립세대	계	
바닥이 미끄럽다	7(19.4)	5(29.4)	12(22.6)	
어두워서	5(13.9)	3(17.6)	8(15)	
수세식변기 불편	1(2.8)		1(1.9)	
환기부족	6(16.7)	4(23.5)	10(18.9)	
협소	7(19.4)	5(29.4)	12(22.6)	
식구가 많다	9(25.0)		9(17.0)	
온수공급 불량	1(2.8)		1(1.9)	
計	36(68.0)	17(32.0)	53(100)	

취사가담율은 동거유형별로 다른 의미를 가지는데, 여성응답자의 비율이 높은(67.0%) 동거세대 경우 응답자 자신이 직접 취사하는 노인이 44.2%로서 이는 일반적인 여성의 가사부담정도로 볼 수 있다. 응답자의 부부동거비율이 96.5%에 이고, 75.3%가 남성응답자라는 점에서 독립세대의 취사가담율이 54%에 이르는 것은 남성의 취사참여정도를 의미하므로 동거세대에서와는 다른 의미를 가진다.

독립세대의 경우 44.0%로 나타나 독립세대에서는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가사노동 분담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응답자들이 부엌에서 느끼는 불만스런 이유로는 '수납공간 부족'과 '환기부족'이 각각 30% 내외로 높으며 이외에도 면적의 협소, 싱크대의 높이 등에 대한 불만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불만사항들은 노인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나타난다기 보다는 일반인들에게서도 공통적으로 느끼는 문제들이다. 특히 싱크대의 높이에 있어서는 상당수의 노인들이 불편해하고 있으므로 이 점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표 9. 취사가담율 f(%)

구 분	동거세대	독립세대	計
남 성	13(41.5)	28(60.9)	41(37.0)
여 성	52(58.5)	18(39.1)	70(63.0)
計	65(58.6)	46(41.4)	111(100)

표 10. 부엌사용시 불만요인 f(%)

구 분	동거세대	독립세대	계
협소	8(16.7)	2(7.7)	10(13.5)
싱크대의 높낮이	8(16.7)	5(19.2)	13(17.6)
환기부족	11(22.9)	11(42.3)	22(29.7)
어둡다	1(2.1)		1(1.4)
수납공간부족	18(37.5)	6(23.1)	24(32.4)
동선이 길다	1(2.1)	2(7.7)	3(4.1)
기타	1(2.1)		1(1.4)
計	48(64.9)	26(35.1)	74(100)

V. 노인전용주거에 대한 인식도 및 선호도

1. 노인전용주거에 대한 인식도

우리나라 유료 양로시설은 전국적으로도 13개 소⁷⁾에 불과하고 유료 주택의 경우는 강원도에 1개소 뿐으로 노인전용주거는 아직 그 위치를 찾지 못하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복지시설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 이에 대한 선입관이 부정적으로 나타났는데, '노인전용 주거 시설'이라 하면 무료 양로원, 요양시설 등 일종의 무의탁 노인들을 위한 수용시설로 받아들여서 거부감이 심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자식이 있는데 그러한 특수한 시설의 이용에 대해 타인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경우가 많았다.

전체 응답자 중 노인전용주거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가 35.0%로서 자신들이 노인전용주거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자임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의 인식도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계층별로 보면 60대와 8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비교적 높은 인식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연령적으로 볼 때 65세를 전후해서 본격적인 노년기의 출발점으로 모든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맞게 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는 과정에 있게 되고, 80세를 전후해서는 또 하나의 과도기적인 시기로서 자신의 건강과 수명 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불안감을 많이 갖고 있는 시기로 볼 수 있다.

여성보다 남성이, 저학력자보다 고학력자가, 동거세대보다 독립세대에서 노인주거에 대해 높은 인식도를 보이고 있다.

2. 거주희망지역 및 노인전용주거 선호도

이주를 희망하는 경우는 40.9%로, 어느 지역을 원하는가 라는 질문에는 응답자 중 85.0%가 도시지역을 선호하고 있다. 조사대상 지역의 특성상 농촌과 인접하고 있는 지역도 있으나 농촌 지역에 대한 선호도는 약 15.0% 정도이며, 도시지

표 11. 노인전용주거에 대한 인식도 f(%)

구 분		알고있다	모른다	計
計		76(35.0)	141(65.0)	217(100)
연령	55-59세	10(28.6)	25(71.4)	35(16.1)
	60-64세	14(45.2)	17(54.8)	31(14.3)
	65-69세	19(38.8)	30(61.2)	49(22.6)
	70-74세	12(30.0)	28(70.0)	40(18.4)
	75-79세	9(25.7)	26(74.3)	35(16.1)
	80세이상	12(44.4)	15(55.6)	27(12.4)
성별	남	46(45.5)	55(54.5)	101(46.5)
	여	30(25.9)	86(74.1)	116(53.5)
학력	고졸이상	51(48.1)	55(51.9)	106(48.8)
	중졸이하	13(21.0)	49(79.0)	62(28.6)
	무 학	12(24.5)	37(75.5)	49(22.6)

역 중에서도 도심지를 원하는 노인은 35.0%인 반면에 도시의 근교를 희망하는 경우는 50.0%로서 도시의 혼잡스러움은 피하면서도 도시의 영향권 안에 있으려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노인전용주거에 대한 선호도는 '이주를 원한다면 어떠한 주택을 선호하느냐'는 질문을 통하여 조사하였는데, 선호하는 주택의 형태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고 있는데 단독주택보다는 공동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이는 현재 살고 있는 곳이 고층아파트인 점과 최근의 일반적인 주택선호경향인 편리성을 취하려려는 결과로 보여진다.

오찬욱(1992)의 조사연구에서는 단독주택 또는 연립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으나, 김태일(1995)의 조사연구에서는 조사대상이 서울지역으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노인의 비율(43.4%)이 높기는 하나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52.0%로 단독주택에 대한 선호도를 앞서고 있는데, 본 조사에서도 52.9%가 아파트를 고수한다는 아파트 고수형⁸⁾으로 나타났다.

동거세대의 경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선호도가 거의 비슷하여, 33.7%가 일반단독주택을 30.0%가 일반공동주택을 희망하고 있다. 독립세대에서는 공동주택의 선호도가 높아 46.2%가 일반공동주택을, 25.6%가 일반단독주택을 희망하고

표 12. 거주지역에 대한 선호도 f(%)

구 분		도심지	도시근교	농촌	計
計		42(35.0)	60(50.0)	18(15.0)	120(100)
연령	55-59세	4(19.0)	15(71.4)	2(9.5)	21(17.5)
	60-64세	7(35.0)	10(50.0)	3(15.0)	20(16.7)
	65-69세	10(40.0)	11(44.0)	4(16.0)	25(20.8)
	70-74세	5(25.0)	13(65.0)	2(10.0)	20(16.7)
	75-79세	8(44.4)	6(33.3)	4(22.2)	18(15.0)
	80세이상	8(50.0)	5(31.3)	3(18.7)	16(13.3)
성별	남	12(26.1)	29(63.0)	5(10.9)	46(38.3)
	여	30(41.1)	30(41.1)	13(17.8)	73(60.8)
학력	고졸이상	14(25.5)	36(65.5)	5(9.1)	55(45.8)
	중졸이하	18(48.6)	15(40.5)	4(10.8)	37(30.8)
	무 학	10(35.7)	9(32.1)	9(32.1)	28(23.3)

있다.

노인전용주거에 대한 선호도는 주택의 종류에 관계없이 동거세대가 독립세대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IV. 결 론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자녀와 동거하는 동거세대의 동거이유가 처음부터 함께 살았다는 경우가 60% 이상을 보이고 있어 우리 사회에서는 부모를 모셔야 한다는 의식이 지배적이라 할 수 있으나, 자녀가 원한 경우가 부모가 원하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난 점이 주목된다.

현 동거를 그대로 지속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여, 동거세대의 경우에 자녀와의 동거에 대해 긍정적이나, 독립세대의 경우에는 부정적이다.

표 13. 주택 선호도 f(%)

구분	단독주택			공동주택			양로원	計
	일반	전용	小計	일반	전용	小計		
동거세대	27 (33.7)	13 (16.3)	40 (50.0)	24 (30.0)	15 (18.8)	39 (48.8)	1 (1.2)	80 (67.2)
독립세대	10 (25.6)	4 (10.3)	14 (35.9)	18 (46.2)	6 (15.4)	24 (61.6)	1 (2.5)	39 (32.8)
計	37 (31.1)	17 (14.3)	54 (45.4)	42 (35.3)	21 (17.6)	63 (52.9)	2 (1.7)	119 (100)

동거세대에서는 고연령자인 경우, 여성인 경우, 건강이 나쁜 경우, 배우자가 결혼된 경우, 자녀와의 동거에 긍정적이고, 고학력자인 경우, 경제적 자립도가 높은 경우 자녀와의 동거보다는 별거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독립세대에서는 모든 유형별로 자녀와의 동거에 부정적이며, 특히 60대인 경우, 고졸이상인 경우,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동거에 아주 부정적이다

2. 현 공동주택에 대한 각 공간별 만족도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동거주택의 경우 가족 구성원의 특징에 의해 침실이 결정되어 적절치 않은 환경에 있으나, 독립세대의 경우 자유롭게 이용 공간을 선택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식사공간에서도 나타나는데, 독립세대의 경우 거실의 이용이 21.2%에 이른다.

불편한 이유는 침실의 실온이 부적당하다, 화장실 바닥이 미끄럽고, 협소하다, 부엌의 수납공간이 적다는 불만이 가장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는 노인만이 느끼는 문제점이 아니고 다른 세대에서도 모두 느끼고 있다는 점이므로 노인의 특성과 함께 일반적인 문제점도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3. 노인전용주거에 대해 노인들의 인식도는 35%이며, 이주시 선호도는 31.9%로 인식도와 선호도에서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노인전용주거와 무의탁 노인수용시설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동거세대의 경우 자녀에 대한 강한 애착으로 노인전용주거에 대한 편견이 보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된다.

주거지역은 농촌보다는 도시지역을 선호하고 자신들과 비슷한 환경을 가진 동년배 노인들과 이웃하기를 선호하고 있다.

위와 같은 결과를 통해보면 동거세대의 경우 현 동거형태가 자발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으로 자녀와의 동거에는 긍정적이면서도 실제 생활에 있

어서는 부정적이므로 가정내에서 이들의 역할에 대한 배려 및 고려가 요구된다. 또한 주택공간의 이용에서 노인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표출시키기보다는 기존의 생활양식에 순응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표면화시키고 사회와 가정이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대응책이 요구된다.

독립세대의 경우 현재의 독자적인 생활과 거주 공간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으나 연령적으로 70세 미만인 점을 고려하면 단기간 내에 스스로의 상황이 변화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예측하거나 대응책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므로 이들이 스스로의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현재* 활과 공간과의 관계를 검토하도록 하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노인전용주거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는 이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접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다른 측면에서 보면 기존의 거주형태가 변화되는 것에 대한 반감일수도 있다는 점이다. 농촌보다는 도시지역을 선호하는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으로 노인문제를 이해하려는 시도가 효과적인 문제 해결에 장애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노인들이 기존의 환경을 선호하고 있으므로 일차적으로 현재의 가정에서 노인에게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요구된다.

물론 1차적으로 도출되는 것은 거주환경과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생활양식이나, 이보다는 住意識뿐만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선행되어야만 이 주거공간에서의 생활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세대를 조사대상으로 하여 문제점을 조사하였으나 차후에는 함께 동거하고 있는 다른 가족 구성원의 거주실태 및 만족도와 의 비교 및 노인주거에 대한 일반인들의 의식도에 대한 차이점 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주

- 1) 노인독신 또는 노인부부만으로 구성된 가구.
- 2)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996, 60세 이상의 인구비로서 1985년에는 6.7%, 1995년에는 9.2%.
- 3) 권영민 외, 노후생활에 알맞은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욕구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집, 1997.
- 4) 3대 동거가족의 주요구, 최정신, 1990.
- 5) 한국노인문제연구소, 실버산업개발전략-노인복지와 민간부분 역할, 1993, p.283.
- 6) 오찬옥외, 노년기의 상황설정에 따른 노인주거 특성에 대한 선호,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93, 2, P.35-45.
- 7) 노인복지시설현황, 보건복지부 노인복지과, 1997.
- 8) 김태일, 유료노인주거시설의 계획조건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995. 10, P.19-27.

참고문헌

1. 이지혜, 노인 독립생활을 위한 주거환경계획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논문, 1987.

2. 서승희, 노인의 주거 환경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논문, 1988.
3. 이가옥외, 노인단독가구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9, P.47.
4. 김응석외, 노인가구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9, P.19, 47, 88.
5. 고성룡, 노인을 위한 공동주택 주거환경계획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6. 오찬옥외, 주거욕구과약을 위한 하위상황설정기준, 한국노년학회논문집 제 12권 2호, 한국노년학회, 1992.
7. 오찬옥, 중년층의 선호성향을 통해본 노인주거 모델,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8. 보건사회백서, 보건사회부, 1993.
9. 실버산업 개발전략-노인복지와 민간부분 역할, 한국노인문제연구소, 1993, P.283.
10. 최미라, 주거 이동의 동기와 유형의 지역간 비교 연구, 대한 건축학회 논문집, 1994, 7, P.45-56.
11. 이경관, 삼대가족형 아파트 개발에 관한 연구, 수원대학교, 석사논문, 1995.
12.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1996.
13. 노인복지시설 현황, 보건복지부 복지과, 1997.
14. 김태일, 유료노인주거시설의 계획조건에 관한 연구, 대한 건축학회 논문집, 1995. 10, P.19-27.

(接受 : 1998. 7. 1)